

# '11년째 땅꺼짐' 장성 농경지 시추조사

## 전남대 연구소 26일 장성 와룡리서 지하 시추공 탐사 개시 3월 중순까지 10곳 시추 탐사...지하 촬영·시료분석 진행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장성군 황룡면 와룡리 일대 농경지 땅꺼짐(싱크홀) 현상 원인규명을 위한 지하 시추공 탐사 조사가 26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조사는 고려시멘트가 운영하는 지하 석회석 채굴용 건물광산이 소재한 황룡면 와룡리 일대 농경지에서 지난 2008년부터 잇따르고 있는 땅꺼짐 발생으로 제기된 주민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장성군이 지난해 9월 민(주민대책위)·관(장성군)·사(고려시멘트) 협의회를 구성하고 곧바로 용역사로 선정한 전남대학교 해외자원개발연구소가 오는 8월까지 1년간 조사를 진행한다.

전남대연구소는 이날 조사 대상으로 민관사협의체가 선정한 와룡리 일대 과업대상 농경지(가로 200m×세로 150m) 10곳에 대한 시추공 탐사에 착수했다.

시추공 탐사를 위한 지하 굴착 작업은 1차 5곳, 2차 5곳으로 나눠 오는 3월 초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시추 조사는 지하 50m까지 수직으로 시추공 10개를 뚫는다. 외경 73mm(3인치), 내경 54mm(2인치) 규격의 시추공을 통해 지하 파쇄대(단층을 따라 압착이 파괴된 띠 모양의 부분)와 공동(빈 공간) 유무 등을 확인하게 된다.

조사 기간 동안에는 주민들이 싱크홀 발생 원인으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석회석 채굴용 건물광산 경도 내 지하수 배수량과 와룡리 일대 월별 강우량을 비교하는 조사도 함께 추진된다.

당초 시추에 앞서 진행하기로 했던 '전기 비저항 지하 탐사'는 앞서 철도시설공단 등 4개 기관이 실시한 조사 자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전남대연구소는 지하 시추가 완료되면 시추공 내로 360도 회전이 가능한 카메라를 투입해 내부를 촬영하고, 시료(시추 과정에서 확보된 암반 코어)를 분석하게 된다.

또 오는 8월까지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강수량이 포함된 수리조사를 추진하고 시추공 지질 조사 결과가 포함된 '수치 해석'을 통해 땅꺼짐 발생 원인을 규명하게 된다.

착수일로부터 1년간 진행되는 이번 용역 조사 결과가 담긴 최종 보고서는 오는 8월까지 나올 예정이다.

지하 시추공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와룡리 일대의 용역조사가 완료되면 광산 굴착에 의한 인제

나 vs '지하수에 의한 자연현상'이냐를 놓고 주민대책위와 광산 운영사인 고려시멘트 간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분쟁이 해결될 지 주목된다.

앞서 황룡면 와룡리 일대에서는 지난해 6월 호남고속철도와 150m 떨어진 농경지에서 누적 횡수로는 6

번째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문제는 농경지 외에도 호남고속철도 와룡천교 지하 23~31m 지점에서 '800m' 규모의 땅속 공동(빈 공간)이 발견돼 논란이 됐다.

당시 발견된 지하 공동은 레미콘 133대 분량(1대 6m<sup>3</sup>)으로 배워야 할 정도로 큰 규모였다.



봄 햇살 즐기는 큰고니 가족 26일 오전 경남 남해군 창선면 한 바닷가에서 천연기념물 제201-2호 큰고니와 오리들이 따뜻한 봄 햇살을 받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 전남경찰, 조합장 선거사범 38명 수사

전남 경찰이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총 38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경찰청은 26일 조합장 선거와 관련, 지역 22개 경찰서에 접수된 선거사범은 총 38명(28건)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1명(1건)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불구속 2명(2건), 6명(4건)에 대해 내사종결 처리했다.

나머지 29명(21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적발된 선거사범 중 금품제공이 25명(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색선전 9명(6건), 사선 선거운동 4명(4건) 순이다.

철도시설공단은 고속철도 안전운행과 사회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난해 4월26일부터 5월21일까지 땅속 빈 공간에 시멘트·모래·자갈 등을 채워 넣는 보강공사를 했다.

장성 황룡면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용역조사 결과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농경지 땅꺼짐 현상이 광산 채굴에 의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지반안정화 공사 또는 농지매입 등을 고려시멘트 측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 인도 전투기,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에 폭탄투하

인도 전투기가 26일 파키스탄 영공을 침범해 파키스탄에 공습을 가했다. 그러나 파키스탄 군 대변인이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공습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대변인은 덧붙였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인도 전투기가 파키스탄 영공을 침범해 공습을 가하기는 1971년 양국 간 전쟁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파키스탄군의 아시프 가푸르 소장은 인도 전투기들이 파키스탄이 통제하는 카슈미르 무자파라바드 구역 상공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그는 파키스탄 전투기들이 요격을 위해 출격했지만 인도 전투기들이 먼저 되돌아갔다고 말했다. 인도 전투기들은 그러나 파키스탄이 통제하는 카슈미르 외곽 발라코트에 서둘러 폭발물을 투하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가푸르는 이와 함께 신립 지역에 대한 인도 전투기들의 공습 흔적이라며 울퉁 파인 땅과 넘어진 나무 등 4장의 사진도 트위터에 함께 게재했다. 인도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가엔드라 싱 세키야트 인도 농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공군이 오늘(26일) 아침 국경선을 따라 테러 캠프에 폭격을 가하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인도의 파키스탄 공습은 지난 14일 인도가 통제하는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자살폭탄테러 공격으로 최소 40명의 인도군이 사망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여겨지고 있다.

파키스탄에 거점을 두고 있는 무장단체 자이시-에-모함마드는 자신들이 테러 공격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미리 제작된 동영상 속의 테러 공격범은 인도령 카슈미르 주민이었다.

한편 인도 언론들은 인도 공군의 미러주 2000 전투기들이 이날 새벽 3시30분(현지시간) 파키스탄이 통제하는 지역 내 테러범들의 거점을 공습했다고 보도했다.

## 미군 소말리아 공습 알샤바브대원 35명 살해

미군은 소말리아의 에티오피아 부근 알샤바브 극단주의 단체의 근거지에 대해 24일 밤 공습을 감행 35명의 대원들을 살해했다고 25일(현지시간) 아프리카 미군사령부가 발표했다.

이번 공습은 알카에다와 연계된 무장세력이 중부 히란 지역의 동쪽에 있는 벨레드하인 지역을 통해 이통 중인 것을 알고 이들을 목표로 수행되었다고 미군 측은 밝혔다.

미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소말리아의 알샤바브에 대한 공습 횡수를 적극적으로 늘려왔다. 지난 한 해 동안에 무려 50차례의 공습을 감행한데 이어 올해에도 이미 22차례 공습을 했다. 그 중 4회는 24일에 실시되면서, 알샤바브의 국경 초소들을 모두 파괴했다.

이 검문소들은 소말리아에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격렬한 전투의 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그 동안 알 샤바브가 통행세를 받은 곳들이다. 하지만 소말리아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슬람 국가 건립을 위해 수도 모가디슈를 공격하려고 중부와 남부 농촌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알 샤바브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공습 만으로는 안되고 그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 39년간 '억울한 옥살이' 美남성, 배상받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시 정부가 잘못된 살인죄 유죄 판결로 3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한 시민에게 2100만달러(약 235억원)의 합의금을 배상키로 했다. 24일(현지시간) ABC방송 보도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북서부에 위치한 시미벨리 시 정부는 지난 23일 억울한 옥살이를 한 크레이그 폴리(72)와 2100만달러(235억원)를 지불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폴리는 지난 1978년에 한 여성과 그녀의 4살 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39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

그러나 이후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탄원이 잇달았고, 시미벨리 경찰은 사건 재조사에서 그의 무죄를 입증하는 DNA 증거를 발견했다. 폴리는 지난 2017년 11월 제리 브라운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로부터 사면을 받고 풀려났다. 그는 석방 당시 70세였다.

폴리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도시로부터 거액의 보상금을 받기 위해 법정싸움을 벌여오고 있다.

시미벨리 시 정부는 "폴리에게 일어난 억울한 일을 돈으로 보상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폴리와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시 정부는 2100만 달러의 보상금 가운데 490만달러(약 55억원)를 폴리에게 우선 지불하고 나머지 보상금은 보증을 포함한 다른 재원에서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화재 10건중 3건 봄철 발생

한해 발생하는 화재 10건 중 3건이 봄철에 집중되는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담배꽂초 등 부주의로 불이 번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 21만6498건 가운데 가장 많은 6만3513건(29.3%)이 봄철에 발생했다. 이어 겨울 6만3242건(27.9%), 여름 4만7485건(21.9%),

가을 4만15176건(20.9%) 순이었다.

화재로 436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사망률은 겨울(586명, 36.7%)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27.3%를 기록했다. 여름은 344명(21.5%), 가을은 232명(14.5%)이 화재로 숨졌다.

봄철 발생한 다수인명피해 화재로는 지난해 3월 부산 아파트(사망 4명)와 5월 대전 공장(사망 3명, 부상 6명) 사고가 있었으며

2014년 5월에는 고양 종합터미널(사망 8명, 부상 116명)과 삼성 요양병원(사망 21명, 부상 8명) 등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봄철에 발생한 화재원인은 담배꽂초 등 부주의(58.9%)가 가장 높았는데 구체적으로 담배꽂초(29.9%), 음식물 조리(17.5%), 쓰레기소각(14.3%), 불씨·불꽃방치(13.4%) 순으로 발생했다. 이들 사고에서 사망자 비율도 25.2%로 방화(22.7%)보다 높았다.

뉴시스

건강 IN  
신중한 정보, 건강한 생활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녀치료를 위해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해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는 검진기일이 혼잡하다면,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 일반 건강검진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구강 검진
- 암 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고객센터 1577-1000]